

2019년 4월 25일, 서귀포시 예래동(색달동) 색달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성정순(남, 1943년생, 서귀포시 색달동)

- 서귀포시 색달동(천서동)출생, 제주4·3사건 때 현재 거주지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군산 명당에 묘지 터를 쓴 집안에 날개 달린 쌍둥이가 태어났다. 역적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한 부모가 날개를 지저 없애서 쌍둥이는 장수가 되지 못하였다.

[제보자] 군산 지금 지경은 분명한 건 모르는데, 옛날 그 산, 산자리가 명당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라. 그러니까 그 명당 자리에 이제 그 계난 살그머니, 법에서는 못허게 하는데 그 자리를 가가지고 묻을라고. 묻으며는 뭐 장군도 나오고 장사도 나온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산자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묻을라고 사람들은 버르는데. 그 행정 당국에서 못허게 하니까 밤에 같은 때 사람이 돌아가시며는 헛무덤을 판 데 가 해 놓고 으디 묻었다 해 놓고 그딜 가가지고 살그머니 평지 만 들고 이제 묻었던 모양이라.

그러니까 그디 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잇었는디 쌍둥이를 낳았어. 쌍둥이를 낳는데, 그 쌍둥이를 옛날 애기구덕에다가 딱 눅정 놔 둔, 그렇게 눅정 놔 두며는 어디 일 갔다 와 보며는 아이가 자꾸 누운 자리가 틀려. 하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루는 아이를 눅져 두고 어디 드르팠데 일 가는 척하고 가만히 곱안 봤어.

곱안 보니까 조금 시니까 아이들이 누었다가 일어나서 방 안에 못 가는 디가 없어. 천장에도 붙으고 뭐 날아다녀 날아다녀. 날아다니다가 사람 기적이 나니까 탁 허게 누었던 자리에 와서 누우면서 자세가 틀려분 거야.

하, 그걸 보니까 겁이 바짝 나가지고 그 엄마 되는 사람이, 이제 어디 가 점치는 사람한테 가 들었더니, 아이 잘 떼라그네 겨드랑이 소굽에 들어서 보며는 거기 그 날개가 있을 거라고,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금실로 짝 허게 그 감아가지고 짜끄만허게 해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날개를 그냥 뭐 윤디로나 지저 불라고 했어.

근디 하루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천장에 붙었다가 막 장난 치면서

막 하다가 사람 기적 나니까 탁 허게 제자리에 와 눈 거 보니까 자세도 틀리고  
헌데, 그 말을 인제 점칩이 가서 들었더니, 그 방에다가 탁배기를 한 도가니를  
만들어가지고 바가지 튀우고 놔둬 보라고 했어.

그니까 가네들이 그 옛날 같으면 탁배기라고 했는가, 그 막걸리 술을 아마도  
가네들 먹으라고 헌 건데, 그거는 나중이고 그 점쟁이 말 듣고 이젠 겨드랑이 소  
굽에 날개 감춘 거를 다 지저 불었어.

지저 부니까 가네들은 잠을 자며는 며칠씩 자는데 아 자다가 일어난 겨드랑이  
쓸어 보니까 날개짓이 다 테와불고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때 그 탁배기를 만  
들어 놔둔 걸 도가니 채 막 먹고 잠자면서 시름시름. 아마도 가네들이 그렇지 않  
고 놔뒀으며는 그냥 뭐 참 아주 장수가 돼가지곡 뭐 이름이 날릴 건디 안 됐다  
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.

[조사자] 그게 군산에서 내려오는?

[제보자] 응, 군산에서. 그러니까 그 터가 장군터인데 그 장군을 내와놓고 그만 그렇게 날개  
짓 지저부니까 결국 그때 당시는 나라에서 그런 애가 태어나며는 역적으로 몰았  
던 모냥이라, 역적으로.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그렇게 테와 불었던.

[조사자]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수과?

[제보자] 어, 어르신들한테 들어진 거 닮아. 들은 말이 많아. 어느 말이 옳은 건진 몰라도.  
그런 말도 있고.

• 핵심어: 명당, 쌍둥이, 겨드랑이, 날개, 장군터, 탁배기(막걸리), 군산